



전주비전대 지적토목학과, 공무원 대상 드론교육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는 최근 도내 시·군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드론산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활용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 드론영상 촬영부터 동영상 콘텐츠까지 드론의 전반적인 실습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을 지도한 이근상 교수는 "이번 교육은 재학생들이 보조강사로 학과전공교육에서 배운 학습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서비스러닝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협력 거버넌스 선순환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이어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ESG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순창자본센터, 재활용품 나눔장터 개최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김삼순)는 21일 순창읍 전통시장에서 자원봉사자 8명과 함께 재활용품 나눔장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나눔을 통한 자원 재활용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순창읍 전통시장에서 21일 9시부터 열렸다.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에 따르면 이날 주민들이 기부한 재활용품 1,000여점 가량을 진열하여 판매하였고 의류와 신발 가방 잡화 장식품 등을 비롯한 생활용품들을 1,000원에서 2,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 장날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양수발전소, 난방유 지원 기부문화 동참

사단법인 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는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소장 권택규)가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자공모사업을 통해 이날 중으로 어려운 이웃 35세대에 난방유를 1드럼(320,000원) 각 가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기 및 장마철에 경제적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움을 드리고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눔과 실천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군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무주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보곤 에너지빌딩 대표, 이웃사랑 실천

(주)에너지빌딩 김보곤 대표가 이웃사랑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무주군을 찾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마스크 2만매(환가액 1천380만)를 기탁했다. 김대표는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군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마스크를 기탁하게 됐다"며 "모두가 희망을 잃지 말고 무더운 여름을 극복하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다학제 통합진료 100례 달성

전북대병원, 분야별 전문가 모여 환자중심 맞춤형 진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전북지역 최초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다학제 통합진료가 올해 상반기에만 100례를 넘어섰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6년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작했으며 간암, 위암,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다학제통합진료실 개설로 통합진료가 활성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6월 21일 현재까지 대장암 75건, 간암 20건, 위암 10건, 폐암 4건, 구경부암 등 기타 질환 6건 등 상반기에 만 115건의 실적을 거뒀다. 올해 1월 개설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 다학제통합진료실에서는 소화기외과·소화기내과·영상의학과·혈액종양내과·방사선종양학과·흉부외과·호흡기알레르기내과 등 7개과에서 20여명의 전문가들이 통합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다학제 통합진료는 환자의 질환 및 관련 질환에 따라 3인~9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 최적의 환자 맞춤형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1명의 환자에 대해 의료진 1명이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담당하는 기존 주치의 위주의 진료와 다른 환자 중심으로 개별 특성에 맞게 관련 진료과가 함께 모여 최상의 치



료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개인별 맞춤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학제 통합진료 대상 환자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 또는 입원 후 주치의가 환자에게 다학제 통합진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진행하게 된다. 환자와 보호자는 진료전반에 적극 참여하여 충분한 질문과 답변 및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최선의 치료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한명의 환자를 위해 3개과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환자가 진료를 위해 찾아다니지 않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자리에서 신속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다학제 진료에 참여한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만족도가 높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초교 8곳 농생명 교육프로그램 제공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국립청소농생명센터(원장 정은식)와 함께 최근 전주문하초등학교에서 농생명 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스포레스트', '나도 이제 식물의 사', '생명을 품은 씨앗'을 주제로 식물병리학의 기반이 되는 농생명 과학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 과학적 소질을 함양하고 생태계의 특성을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은 오는 9월까지 전주 덕진초, 군산 아리울초, 익산 옥야초 등 도내 초등학교 7곳에서 추가로 진행되며 농생명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우리 학생들이 지구시민임을 자각하고 농생명의 가치와 미래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전북농협은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통문화전당·수공예협동조합, 지역 수공예 발전 '맞손'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수공예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 수공예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과 전주수공예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송이석)은 지난 20일 전당 4층 소회의실에서 전통문화와 수공예에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공예 발전을 위해 '전통문화'와 '수공예' 관련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오는 10월 가칭 전주·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수공예사회적협동조합이 주최·주관하는 전주수공예 교육·체험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공연·전시·체험·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송이석 전주수공예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수공예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가 지역 수공예인들의 자립과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수공예박람회가 지역 수공예인들을 하나로 묶고 수공예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비전대 응급구조학과, 장기기증본부로부터 감사패

전주비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지난 20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본부(본부장 문병호)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비전대 응급구조학과는 2012년부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부전질환 등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매년 1학년 전체 학생들이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있다. 올해는 응급구조학과 학생 전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완료했고, 교수들은 희망등록과 더불어 매달 소정의 기부를 약속해 생명나눔의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운영한 학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장기기증이 줄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기증에 동참한 우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패를 전한다"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고령받는 이웃을 돕는 숭고한 생명나눔 실천이며, 사과 현장에 출동하는 미래의 응급구조사로서 사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김제시, 첫 카뎃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대표선수 선발전

Sofa 2022 세계선수권대회 겸 제4회 아시아카뎃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이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초등선수, 임원,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되는 세계 카뎃태권도 선수권대회와 베트남에서 8월에 개최되는 제4회 아시아 카뎃태권도선수권대회에 초등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를 파견하기 위한 대회로 각 체급별 1위자는 세계 선수권대회, 2위에 입상한 자는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하기 위한 대회이다. 김제시는 태권도 종목 초등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도시의 위상 제고와 함께 올해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박종문 체육청소년과장은 "이번 김제에서 열린 대회에서



첫 태권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는 것이 선수 개개인에게 좋은 기억으로 평생 간직될 것이며, 김제를 알리고 본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질의 스포츠 대회 유치 활동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박노태 기자



완주군 보건소, 심폐소생술 홍보활동 전개

완주군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 홍보를 전개했다. 21일 완주군 보건소는 최근 4일간 보건소를 방문한 지역 주민을 비롯해 관내 거주자를 직접 찾아가 리플릿을 나눠 주며 심폐소생술의 방법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초기 응급처치는 환자의 예후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심정지 환자는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생존율이 99% 이상이다. 골든타임 4분을 넘기면 생존율이 25% 이하로 낮아지므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생존율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췄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이며, 뇌사 상태 방지를 위해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심폐소생술은 3단계로, 1단계 깨우기(심정지 환자 반응 확인), 2단계 압리기(119신고와 도움요청), 3단계 누르기(가슴 압박)로 기억하면 된다. 이연정 건강증진과장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원보다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더 중요하다"며 "심폐소생술을 미리 배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삼천1동 지사시험, 홀몸어르신 세대 밀반찬 전달

전주시 완산구 삼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상호)는 지난 21일 소망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인부 편지와 함께 정성껏 준비한 밀반찬을 복지사각지대 홀몸어르신 12세대에 전달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이 이른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조리한 밀반찬과 아이들의 인부 편지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도 확인했다. 한상호 위원장은 "삼천1동 협의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세대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교 및 밀반찬 나눔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삼천1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인후3동 지사보합, 소외계층에 선풍기 전달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진해)는 21일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힘들어하는 홀몸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 관내 소외계층 20세대에 선풍기를 전달했다. 이날 협의체는 위원들이 직접 발굴한 대상자들에게 선풍기를 전달하며 안부를 물었다. 정진해 위원장은 "올 여름에도 폭염이 예보된 상황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선풍기를 전달함으로써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안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모처럼 나가기"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에 설립된 인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봉사를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윤상 기자